



지난 24일 광주 광역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오른쪽 첫번째)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가운데),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銀-광주시, 전략적 파트너십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한뜻'

혁신역량 갖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신한銀, 금융·컨설팅 서비스 제공  
광주시, 투자환경 조성 등 행정서비스

역 중점 육성 산업분야 기업의 광주시 유치활동 협력을 비롯해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금융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광주광역시,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시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역 중점 산업 분야의 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 투자 인센티브 등 제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은행, 광주시, 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시 4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내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글로벌 혁신역량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기반기술 인프라 활용 및 연구개발(R&D) 활동 등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20개국 153개의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해 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광주에서 새롭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의미있는 협약"이라며 "신한은행은 공동 투자유치 IR 활동을 비롯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진출 전반에 거친 윈스톱 금융 솔루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캠코, 개인 가혹 추심 막는다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식  
연체 발생 무담보대출 과잉추심 자제  
금융사, 채권상각이후 가산이자 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기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한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연체된 개인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 가혹한 추심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캠코와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보험 등 전 금융권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전 금융권은 올해 2월부터 12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 대출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채



손병두 부위원장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

권 매입이 불가피할 경우 캠코에게만 매각한다.

금융회사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상각 이후에는 연체 가산이자를 면제해 과도한 연체부담도 제한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했지만 금융회사의 반대로 조정이 불가

한 채무자도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캠코에 채권 매입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즉시 추심을 중지해야 하고 캠코와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매각해야 한다.

캠코는 채권 매입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연체 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추심을 유보한다. 또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캠코는 오는 29일부터 1년간 금융회사와 채무자로부터 매입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채권을 매입한다. 매입기간은 필요시 추후 연장될 수 있다.

캠코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차로 6~9월 중 신청을 받은 뒤 채권평가 등 채권 양수도 절차를 거쳐 10~11월 중 일괄 매입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25일 열린 회장 취임식에서 재단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홍식 우리은행 개인그룹장, 전원일 우리미소금융재단 이사, 권광석 우리은행장 겸 우리미소금융재단 회장, 유수현, 김용태, 오규희 우리미소금융재단 이사. /우리은행

권광석, 우리미소금융재단 회장 취임

<우리은행장>

우리銀-계열사 500억 출연해 설립  
서민 생활안정자금·창업자금 지원

재단은 창업·운영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을 제공한다.

우리미소금융재단은 권광석 우리은행장을 재단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채무불이행자의 채무 조정, 취업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9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1621억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지난 24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우리미소금융재단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권광석 은행장을 재단 회장, 황규복 우리은행 홍보브랜드그룹장을 재단 감사로 선임했다.

권광석 우리미소금융재단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와 금융소외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재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우리미소금융재단은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 생활안정자금 및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계열사가 500억원을 출연해 2009년 12월에 설립했다.

/이영석 수습기자 ysl@

추향존중시대의 직장인을 위해

#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 TEA

TEA-TIME 이제, 콘트라베이스를 더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표 올바르게